■ 월드컵 소식

아드보-핌 베어백 월드컵 후 결별

아드보 러시아행
베어백 행보 관심

한국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 딕 아드보카트 감독〈사진 가운데〉과 핌 베어백 수석코치〈사진 오른쪽〉가 2006 독일월드컵 축구대회를 마지막으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독일 레버쿠젠 바이아레나 울리히-하버란트 훈련장을 찾은 네덜란드 축구전문지 '풋발 인터내셔널' 톰 니핑 기자는 21일 "네덜란드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드보카트 감독과 러시아 제니트 상트 페테르부르크 클럽의 계약이 완료 단계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아드보카트 감독이 수석코치도 이미 결정했다"고 전했다.

니핑 기자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케이블 TV인 RTL7의 축구 토크쇼 프로그램 '풋볼 인사이트'는 아드보카트 감독이 제니트 수석코치로 코르 포트(Cor Pot) 네덜란드 U-19 대표팀 감독을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태극전사를 이끌고 있는 아드보카트 감독과 베어백 수석코치는 이번 독일월드컵을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길을 찾아 나서게 됐다.

베어백 수석코치는 지난 2002년 거스 히딩크 감독과 인연을 끝낸 뒤 아드보카트감독과 의기투합, 독일 분데스리가 묀헨글라드바흐와 아랍에미리트(UAE) 대표팀까지 동행한 뒤 마침내 2006 독일월드컵을 앞두고 4년 만에 태극전사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독일월드컵 이후 아드보카트 감독의 러시아행이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보좌할 수석코치까지 확정하면서 베어백 수석코치의 '포스트 월드컵' 행보가 관심거리로 떠오르게 됐다.

네티즌 55% "한국 G조 1위"

미국 NBC방송 설문조사
프랑스 37%, 스위스 8%

미국 NBC방송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어느 나라가 2006 독일월드컵축구 G조에서 1위를 차지할 것인가'라는 설문 조사에서 한국이 55%로 1위를 달리고 있다.

21일 오전 11시 현재 총 813명이 이 설문에 응답한 가운데 한국은 전체의 55%가 조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답해 1위에 올라 있으며 프랑스가 조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본 네티즌들은 37%였다.

스위스가 조 1위에 오를 것으로 답한 사람들은 7.9%에 불과했다.

한국이 조 1위를 하려면 24일 스위스를 이겨야 하고 프랑스가 조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토고를 2골 이상으로 꺾고 한국-스위스 전이 무승부로 끝나야 한다.

日, 브라질전 대비 집중 슈팅연습

"1시간 이상 500회 정도"
닛칸스포츠 인터넷판 보도

일본 대표팀이 2006독일월드컵축구 조별리그 F조 최종전 브라질과 경기를 앞두고 슈팅 연습에만 몰두했다.

일본 대표팀은 20일 독일 본에 차려진 훈련캠프에서 1시간 넘게 모두 500회 이상 슈팅훈련을 했을 뿐 포메이션에 따른 전술훈련은 하지 않았다고 스포츠전문지 닛칸스포츠 인터넷판이 21일 보도했다.

일본이 슈팅연습에 집중한 이유는 브라질을 큰 점수 차로 이기지 못할 경우 16강행이 물 건너가기 때문.

조별리그 1,2차전 결과 1무1패로 고작 승점 1을 확보한 데 불과한 일본은 브라질과 치를 최종전에서 2골차 이상 이겨야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일본은 23일 오전 4시 도르트문트에서 우승후보 브라질과 맞붙는다.

완초페·산타크루스 '고향 앞으로'

16강행 탈락따라

'검은 표범' 파울로 완초페(코스타리카)와 '최고의 얼짱' 로케 산타크루스(파라과이), 디디에 드로그바(코트디부아르), 드와이트 요크(트리니다드 토바고), 알리 다에이(이란)...

2006 독일 월드컵을 빛낼 것으로 주목 받았으나 조국의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면서 일찌감치 쓸쓸한 귀국길에 오르게 된 스타 플레이어들이다.

가장 먼저 '고향 앞으로'의 신세가 된 건 코스타리카의 간판 골잡이 완초페(30·에레디아노).

완초페는 2002 한·일 월드컵 때 브라질과 조별리그서 만회골을 뽑았고 이번 대회 독일과 개막전에서도 2골을 사냥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코스타리카는 A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21일)였던 폴란드전에서 1-2로 져 3연패했고 완초페는 단 1승도 챙기지 못하고 독일을 떠나게 됐다.

독일 일간지 디벨트가 월드컵 출전 선수 중 최고의 미남으로 선정했던 산타크루스(25·바이에른 뮌헨)도 마찬가지.

A매치 42경기에서 13골을 넣었던 파라과이의 간판 공격수 산타크루스는 팀이 B조 3위(1승2패)로 16강 진출에 실패, 골 맛을 보지 못하고 짐을 싸게 됐다.

또 프리미어리그 첼시 역사상 최고 이적료(3천500만 파운드)를 기록했던 코트디부아르의 드로그바(28)와 1999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트레블크라운(UEFA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 FA컵 우승 석권)'을 지휘했던 트리니다드의 요크(34.시드니 FC)도 조별리그 탈락으로 일찍 귀국길에 오른다.

투수 장민제(광주일고) 등 유망주 대거 발굴

■ 무등기 야구 결산

投-임요한·이영일, 打-나성용·강하승 탁월
뉴욕 양키스 등 국내·외 스카우트들 큰 관심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한 무등기 전국고교야구 대회가 지난 20일 진흥고의 우승으로 8일간의 대열전을 마감했다.

이번 대회에는 2007년 프로야구 1차지명자인 진흥고 정영일(KIA)과 대구고 김동명(삼성), 북일고 장필준(한화) 등을 비롯, 한국야구를 짊어질 유망주들이 대거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뽐냈다. 특히 김병현과 서재응, 최희섭, 이승엽 등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을 배출한 무등기의 명성답게 국내외 스카우트들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우수 유망주 발굴의 장

마운드에서는 뛰어난 제구력을 선보인 진흥고 임요한(2년)과 조영복(2년), 부산공고 이영일(3년), 윤지웅(3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145㎞대의 빠른 직구를 보유한 공주고 김태식(3년)과 한상현(3년), 경기고 김강률(3년)은 2007년 신인 2차 지명 대상으로 손색이 없는 선수들로 꼽혔다.

팀을 준우승으로 이끈 구미전자공고 에이스 추승민(3년)은 8개 구단 스카우트 모두가 군침을 흘릴 정도로 호투를 선보였다.

이밖에 1차전 구미공고전서 7.2이닝동안 무실점으로 쾌투한 광주일고 장민제(1학년)는 '될 성 부른 떡잎'으로 평가됐다.

투타에서 고른 활약을 보인 화순고의 '작은 거인' 김선빈(2년)에게도 스카우트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타석에서는 진흥고 포수 나성용(3년)이 홈런포를 작렬, 높은 점수를 얻었고 강병운(3년)과 강하승(2년)을 비롯해 동성고의 노진혁(2년)과 광주일고 김강(3년) 등이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국내외 스카우트 높은 관심

뉴욕 양키스 극동 담당 스카우트인 존 콕스는 무등기 5일째인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무등기 대회를 관전하며 주요 선수들의 기량을 꼼꼼히 메모하고 데이터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콕스는 "이번 무등기 대회를 통해 한국 고교야구의 높은 수준을 엿볼 수 있었다"면서 "특히 타자보다는 투수들 가운데 기량이 돋보이는 선수가 많았다" 고 분석했다.

콕스는 특히 진흥고 에이스 정영일에 대해 "젊고 체격 조건도 좋아 아주 매력적인 투수" 라고 높게 평가했다.

존 콕스 외에 국내 8개 구단 스카우트들도 대회 기간내내 25개 참가팀 선수들의 기량을 체크하며 바쁜 일정을 보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일본 최고의 타자로 '우뚝'

■ 이승엽 인터리그 결산

홈런 1위(16개)…타율 0.360
교류전 MVP 후보에올라

일본프로야구 인터리그 홈런왕을 2연패한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일본 최고 타자로 우뚝 섰다.

지바 롯데 시절 바비 밸런타인 감독의 플래툰시스템에 따라 좌투수가 나오면 '반쪽 타자'로 전락했던 이승엽은 요미우리 자이언츠 이적 후 처음 맞은 교류전에서 홈런 16개를 쏘아올리고 타율도 0.360의 최정상급 기량을 펼치며 양리그를 통틀어 정교함과 파워를 두루 겸비한 최고 타자임을 입증했다.

이승엽은 지난 20일 끝난 인터리그에서 홈런 1위, 장타율 1위(0.757), 타격 5위로 발군의 기량을 뽐냈다. 그는 22일 발표되는 교류전 최우수선수에서 타점 1위 라미레스(야쿠르트.42개), 타율 1위 마쓰나카 노부히코(소프트뱅크.0.408), 다승(5승)과 방어율(0.91) 2관왕에 오른 사토 미쓰루(주니치), 13세이브를 올린 고바야시 마사히데(롯데) 등과 후보군에 올라 있다. 인터리그에서의 성적을 앞세워 센트럴리그에서도 타격 2위(0.333), 홈런1위(23개), 타점4위(51개), 장타율1위(0.647), 최다안타 2위(86개), 득점1위(56개)에 오르는 등 공격 전 부분을 사실상 접수했다.

센트럴리그 투수들의 변화구에 적응을 마친 이승엽은 2년간 익숙했던 퍼시픽리그 투수들의 집요한 몸쪽 승부를 피하지 않고 홈런으로 연결시키는 완숙한 방망이 타격감을 과시했다. 양대리그 투수들의 볼배합을 철저히 연구, 상대의 노림수를 역이용하는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인터리그는 이승엽에게 독무대가 됐다. 이승엽은 소속팀 요미우리가 교류전에서 13승23패로 철저히 밀리며 리그 3위로 추락해 내놓고 기뻐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승엽은 해결사로서 좀 더 집중력을 키워야 한다는 숙제도 안았다. 공격 전반에서 득점권 타율은 아직도 2할대(0.286)에 머물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세리가 21일 뉴욕주 피츠퍼드 로커스트힐골프장에서 열린 LPGA투어 웨그먼스토너먼트 연습라운드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AP=연합뉴스

스포츠 TV

22일(목)

▲메이저리그〈신시내티-뉴욕M〉(08 : 00·Xports), 〈시애틀-LA다저스〉(11 : 00·Xports)

▲프로야구〈한화-LG〉(18 : 00·KBS SKY SPORTS), 〈삼성-롯데〉(18 : 10·SBS스포츠), 〈KIA-두산〉(18 : 30·MBC ESPN)

23일(금)

▲메이저리그〈신시내티-뉴욕M〉(02 : 00·Xports)

▲PGA투어 부즈 알렌 클래식 1R(05 : 00·SBS스포츠)

■ 전국소년체전 결산

광주 기록·단체종목 3위 견인
전남 투기종목 인재 육성 실패

광주의 '꿈나무' 체육이 지속적인 투자와 체육지도자들의 정성어린 조련 결과 유도, 하키, 육상등의 선전으로 종합 3위라는 사상 최고의 성적을 냈다.

전남은 단체전 막판 스퍼트에도 불구하고 기록종목과 투기종목의 부진으로 순위에서 지난해 보다 뒷걸음했다.

이번 울산 소년체전 성적을 볼때 광주체육은 기록종목의 선수육성과 단체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등을 통해 상위권 도약을 이룬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남 체육은 열악한체육기반시설과 우수 선수 확보난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위권에 머물러 획기적인 학교체육 육성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 지난해에는 역도 6개, 양궁 4개, 체조 4개 등 7개 종목에서 20개의 금메달을 따내는 금메달 편중현상이 심했으나 올해는 13개 종목에서 29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종목 다변화에 성공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단체종목에서 한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으나 올해는 정구, 배구, 하키 종목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해 광주가 역대 최고성적을 기록하는데 일등 공신이 됐다. 특히 광주체육중 선수들의 성적이 지난대회 성적을 크게 뛰어 넘으면서 엘리트 체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케 했다.

광주체육중은 지난해 금 5,은 6, 동12개를 따냈으나 올해는 금 16, 은 9, 동10개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둬 광주의 상위권 진출을 견인했다.

또한 다메달 종목과 정책종목 꿈나무 선수의 지속적 육성결과 다관왕이 늘었다. 역도 김준선과 체조 배가람, 박은경이 3관왕에 올랐으며 육상 신준수, 레슬링 장태성, 수영 황준호가 각각 2관왕에 오르는 선전을 펼쳤다.

하키 송광중은 창단 3년만에 소년체전 우승을 이루며 대회 최대 이변을 연출했고, 송원여중 배구는 소년체전 출전 17년만에 우승을 따내 광주체육의 상위 진출 디딤돌이 됐다.

유도 종목에서도 지난 95년 이후 11년만에 금메달 2개를 획득하는 등 총 7개의 메달을 따내 그동안 침체돼었던 유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하지만 초등부 출전종목이 전반적인 부진을 보였고, 전국 최강의 전력을 보유한 초등부 야구 서석초, 중학부 야구 동성중이 1회전 탈락 해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체육이 종합순위 3위라는 사상 초유의 성적을 거뒀지만 향후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육상, 수영, 체조종목의 초등부 선수 육성책과 전통 강세 종목인 레슬링, 테권도, 역도 등의 지속적인 지원 육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 목표달성 실패는 1인 다메달 획득 기록종목과 전통 강세 종목인 투기종목의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실패한 것에 원인이 있다.

기록종목인 육상에서 단 한개의 금메달에 그쳤으며 역도도 1개, 체조에서는 아예 금메달을 따내지도 못했다. 단체종목에서도 전국최강의 전력인 초등 축구등이 있었음에도 역시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했고, 배드민턴, 펜싱도 역시 노메달의 수모를 당했다. 전통강세인 투기종목인 씨름과 레슬링도 금메달을 단 한개도 구경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특히 광주체육중과 달리 전남체육중은 지난해 금7개를 거둬 나름대로 역할을 했으나 올해는 금 3, 은3, 동6개로 극도의 부진을 보여 전남의 성적의 발목을 잡았다.

이에따라 전남이 하위권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1인 다메달 획득 기록종목과 전통 강세종목의 우수선수 발굴과 장기적인 집중투자가 요구된다.

또한 우수성적을 거둔 학교에 대한 특별 지원으로 팀육성 학교의 동기를 유발하는 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